

나쁜 개, 나쁜 주인

장철봉 (재미한인수의사)

키가 조그만하고 허약하게만 보이는 K할머니가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핏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지난 몇해전 노동절 공휴일, 내가 병원 문을 닫고 여행간 사이 그 핏볼이 갑자기 심한 설사를 하면서 누웠다. 할머니는 자신이 복용하던 항생제와 지사제를 주면서 병원이 문열기를 기다리신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메디칼 의료보험으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개는 커버가 안돼 할머니의 개인 돈으로 치료를 해 준다.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

니로서 비싼 응급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처지가 되지 못해 나의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다.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에 의하면, 일부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개 핏볼이 혐오스럽다면서 싫어한다고 했다. 생김새가 무서워 핏볼을 맹견 또는 투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 탓일 것이다.

건강한 개가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인 것은 부패한 음식이나 독성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 아마 누군가가 연휴이라 한적한 시간에 할머니 집 담안으로 독성이 든 음식을

“

(이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나쁘게 만드는)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다.

”

던져 개가 먹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했다.

나의 병원 단골환자인 그 개는 겁이 많고 순박하며 힘없는 할머니가 데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젊잖은 개다. 병원에만 오면 주사를 맞고 해서 그런지 별별 떨기도 했고 반면 병원문을 나설 땐 발걸음도 경쾌했고 얼굴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가 핏볼을 싸움시키고 싸움에 졌다고 개를 죽여 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 그이도 핏볼을 애완용 개로 키우지 않고 투견용으로만 인식했던 것 같았다.

나의 집에 개가 세마리 있다. 이들 모두 다 손님이 나의 병원에 치료차 데리고 온, 과거에 사고를 당한 또는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던 개들이었다. 수술후 또는 치료후 아픈 증상은 호조되었지만 주인이 오리무중이라 말하자면 버림받은 개들이었다.


이 세마리중 한마리가 암사자같이 생긴 핏볼이다. 교통사고를 당해 대퇴골이 복합골절되어 수술을 하였는데, 당시 통증때문인지 아니면 사고를 당한 분풀이 때문인지 병원에선 자주 으르렁대곤 했다.

집에 입양한 후 개이름을 ‘넙판이’로 불렀다. 얼굴이 크고 넓찍하게 생겨 부처준 이름이었다. 우리집에서 산지가 이제 10년이 된다. 넙판이가

집에 오고 몇년 지나 골던 레튜리부 강아지가 오게 되었다. 이 강아지도 다리가 부러져 수술 후에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넙판이가 이 강아지를 돌보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 천방지축인 강아지가 수영장에 빠질까 그 큰머리로 수영장 멀리 밀어 낸다든가, 같이 다정히 지냈던 고양이가 강아지를 손톱으로 핥는 것을 보고선 고양이를 멀리 쫓아 보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집에온 개는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조그마한 미손 비에호다.

이 개는 흥분하게 되면 기침을 하고 토하기도 했다. 그래도 넙판이는 자신의 잠자리를 양보해주며 거부하지않고 받아 주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는 핏볼을 사육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곳도 있다. 이는 핏볼을 맹견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National Geographic 최신판에 핏볼사진과 함께 글이 있다. “(이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나쁘게 만드는)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다”. 

* 본 원고는 미주중앙일보 2007년 9월 10일자 칼럼난에 게재된 장철봉회원의 글입니다